

AI(Claude3)가 작성한 「유럽AI시장에서 테크기업들의 기회와 도전」보고서

- Meta와 Apple로 관점

(2024.06.25)

글쓴이 Claude 3(by Anthropic), 프롬프팅·편집 신동형(donghyung.shin@gmail.com)

#제가쓴거아닙니다.

#AI가작성했습니다.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유럽 AI 시장에서 메타(Meta)와 애플(Apple)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전략과 도전 과제를 분석한 것입니다. 유럽은 4억 5천만 인구와 17조 유로 규모의 GDP를 자랑하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GDPR로 대표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AI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이 공개한 SNS 데이터를 활용해 현지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와 거부권 부여 등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도, 현지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 AI 기반 신기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사는 향후 개인정보 규제 강화에 따른 데이터 확보 곤란, AI 모델의 윤리성과 설명 가능성 확립 등 공통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단순한 제약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협력적 규제' 접근을 통해 혁신과 책임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하면, 거대 테크 기업들이 유럽 AI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화되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Tech for Good'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통해 유럽 시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기업과 정책 당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 하겠습니다.

1. 유럽 AI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유럽연합(EU)은 인구 4 억 5 천만 명, GDP 약 17 조 유로(2022 년 기준)의 거대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AI 분야에서도 EU 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2030 년까지 EU 가 글로벌 AI 시장의 2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EU 는 'AI 액트(AI Act)'로 불리는 AI 규제안을 마련 중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고위험 AI 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3]. 기업들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세움으로써 AI 개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IDC 에 따르면 유럽의 AI 시장 규모는 2025 년까지 연평균 26.4% 성장해 257 억 유로에 이를 전망입니다. 성장세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지지만, 규제 환경 정비와 인재 유치 등에 힘입어 유럽도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 테크 기업들의 유럽 AI 전략 분석

1) 메타: 현지화된 모델 개발과 투명성 제고

메타(옛 페이스북)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2 년 AI 연구개발비로만 약 150 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는 알파벳(구글), 아마존에 이어 세계 3 위 수준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연어 처리 모델인 'OPT-175B'는 GPT-3 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타는 자사 AI 모델의 유럽 시장 적용을 위해 현지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사용자들이 공개한 SNS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 문화적 특성을 학습시킨다는 계획인데요[^7]. 예컨대 "cuppa"가 '차 한 잔'을 뜻하는 영국 속어라는 걸 알아채고, 에펠탑 사진에 "파리"라는 label 을 붙일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메타는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섰습니다. 또 'AI 액트' 제정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 1 Table 1. 메타의 유럽 AI 전략 요약

구분	내용
현지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사용자 SNS 공개 데이터 활용 ● 언어, 문화적 특성 학습
프라이버시 이슈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활용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 18 세 미만 및 민감 데이터 학습 배제
AI 액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의견 반영한 개선방안 제안 ● 자체 AI 윤리 체계 수립

2) 애플: 개인정보 보호와 기능 지연 가능성

애플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도입해 앱의 사용자 추적을 제한한 바 있는데요. 이는 광고 수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표 2 애플과 메타의 AI 전략 비교

구분	애플	메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프라이버시 최우선, ATT 정책 도입	데이터 활용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규제에 따른 대응	DMA 로 인한 기능 출시 지연 우려	AI 액트 대응 위한 자체 윤리 체계 수립
향후 전망	on-device AI 로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양립	데이터 활용과 보안 이슈 조화 모색

AI 개발에서도 애플은 개인정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EU 의 'DMA(Digital Markets Act)'로 인해 AI 기반 신기능의 유럽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DMA 는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타사 앱과의 상호운용성 등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애플은 이로 인해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법률 준수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iOS 17에서는 개인화된 Siri 음성이나 실시간 텍스트 변환 등 다양한 on-device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정보를 단말기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업계 공통의 도전 과제

메타와 애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테크 기업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을 아우르는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만큼 언어, 역사, 가치관이 제각각인데요. 획일화된 모델로는 현지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로컬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조 속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GDPR 등 EU의 규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았는데요[^12].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과 활용은 기업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 사용자 동의 등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윤리적 기준에 입각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작동방식을 설명하고, 편향성을 해소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AI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AI 규제 환경 변화

EU는 2018년 GDPR 시행 이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이용/유통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ePrivacy Regulation(ePR)을 통해 쿠키 사용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축소시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Gartner 에 따르면, 2025 년이 되면 기업 데이터의 75%가 AI 분석에 부적합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데이터 기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EU 는 'AI 액트'를 통해 전방위적인 AI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위험' AI 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장 출시 전 의무적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AI 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대 3,000 만 유로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 확립이라는 대의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로 인해 유럽의 AI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AI 준비도 평가에서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규제 대응력은 높지만, 투자 여력이나 상용화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 와 기업 간 '협력적 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범의 취지와 원칙은 공유하되, 구현 방식은 유연하게 조율해간다는 개념인데요.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고위험 AI 에 대해서는 공동 검증, 저위험 AI 는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차등적 접근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의 대상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자세의 전환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도함으로써 'First Mover'로서의 이점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브랜드 경쟁력으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메타,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유럽 AI 전략과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혁신과 규제 준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 윤리와 법적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설명 가능하고 투명한 AI 시스템 구현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혁신 동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규제가 다소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의 윤리성과 포용성에 대한 고민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기고, 원칙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와 애플이 선도하는 이러한 변화가 유럽은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의 성숙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유럽 정책 당국에도 제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기술 오남용 방지라는 규제의 대전제는 견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직된 잣대로 인해 유럽의 AI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 혁신의 속도와 방향성이 조절되는 접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포용적인 AI 기술을 통해 유럽 시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일 것입니다.

#유럽 AI 시장, #EuropeanAI market, #거대테크기업, #BigTech companies, #메타, #Meta, #애플, #Apple, #인공지능전략, #AI strategy, #개인정보보호, #Data Privacy, #AI 규제, #AI regulation, #디지털마켓법, #Digital Markets Act, #AI 액트, #AI Act, #현지화, #Localization, #데이터활용, #Data Utilization, #AI 윤리, #AI ethics, #설명가능한 AI, #Explainable AI,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협력적규제, #Collaborative Regulation, #지속가능한 AI, #Sustainable AI, #테크포굿, #TechForGood

출처

Testing the EU's AI Act's Effectiveness With the Open Loop Initiative (Meta, 2024)

Bringing Generative AI Experiences to People in Europe (Meta, 2024; Meta, 2024)

Building AI Technology for Europeans in a Transparent and Responsible Way (Meta, 2024)

Apple may delay AI features in the EU because of its big tech law (LawlerRichard, 2024)